

일 지역 보건계열 대학생들 대상으로 한 희망자녀수, 출산정책, 출산저하 원인이 출산인식에 미치는 영향

정상진*

¹광주보건대학교 보건행정과

Influence of the Hoping Number of Children, the Policy of Childbirth, and the Causes of Reduced Childbirth to the Perception of Childbirth in Health-Line College Students

Sang-Jin Jung¹*

¹Department of Health Administration, Gwangju Health University

요약 목적: 본 연구는 미래의 출산주체가 될 보건계열 대학생들의 희망자녀수, 출산정책, 출산저하 원인이 출산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 본 결과 다음과 같다. **결과:** 첫째, 출산인식에 관한 태도는 개인 삶의 질과 자녀양육, 출산지원 부족, 후손 번식이 출산에 가장 높은 영향을 미쳤으며, 희망자녀수에 관한 태도에서는 경제적 이유, 양육비 및 교육비 증가 원인과 출산인식 등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둘째, 인구사회학적 특성이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 결과 성별에 모든 요인에서 유의하였고, 성장지역에서 희망자녀수, 경제수준에서는 출산정책을 제외한 모든 요인에서, 부모직업에서는 희망자녀수에서 유의하였다. 셋째,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출산저하원인과 경제적 요인에서 희망자녀수, 개인적 요인에서는 출산정책, 출산제도요인에서는 개인적요인, 가족적 요인에서 출산저하원인과 경제적 요인을 제외한 모든 영역에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희망자녀수, 출산정책, 출산저하 원인이 출산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 본 결과 출산인식에 희망자녀수인 무자녀 또는 1자녀를 원하는 경우, 2자녀 이상, 출산정책, 출산저하원인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 출산 주체자인 대학생들의 미래 출산인식을 전환하기 위한 정부차원에서 출산정책 입법제정과 출산지원정책, 출산인식의 가치관 형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운영, 현재 출산지원정책의 효과를 분석하여 새로운 지원책이 마련된다면 출산율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그에 따른 효과를 검증할 수 있는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Abstract Purpose: The influence of the hoping number of children, the policy of childbirth, and the causes of reduced childbirth to the perception of childbirth, which will be the subject of future childbirth, was surveyed by health-line college students.

Results: In terms of the attitude to the perception of childbirth, the quality of personal life, childcare, insufficient support of childbirth, and breeding of descendants had the largest influence on childbirth, and in terms of the attitude to the hoping number of children, economic reasons, childcare expenses, and education expenses had the largest influences. Second, when the causes of social demographic properties influencing childbirth was analyzed, sex showed significance to all the factors on the hoping number of children in terms of growing areas, to all the factors excluding childbirth policy in terms of the economic level, and hoping number of children in terms of the parents' jobs. Third, when the correlation was analyzed, a correlation was found in every area excluding the hoping number of children in terms of the causes of childbirth reduction and economy, childbirth policy in terms of the personal causes, personal factor in terms of the causes of childbirth policy, and family factor in terms of the causes of childbirth reduction and economy. Fourth, when the influences of the causes of hoping number of children, childbirth policy, and childbirth reduction to perception of childbirth were analyzed, the case hoping no or one child, the case hoping 2 or more children, childbirth policy, and childbirth reduction had a positive significant influence on the perception of childbirth.

Conclusion: The childbirth rate will be improved if the following occur: childbirth policy and laws are established at the level of government, education programs are developed and operated for the formation of the value of perception of childbirth, and a new support policy is established after analyzing the current childbirth support policies. To change the perception of childbirth in college students who are future subjects of childbirth, successive studies will be needed to verify the effect of aforesaid measures.

Key Words : Cause of Childbirth Reduction, Childbirth Policy, Hoping Number of Children, Low Childbirth, Perception of Childbirth

본 논문은 2013년도 광주보건대학교 연구과제로 수행되었음.

*Corresponding Author : Sang-Jin Jung(Gwangju Health Univ.)

Tel: +82-62-958-7741 email: jsj3410@hanmail.net

Received May 8, 2014

Revised June 30, 2014

Accepted August 7, 2014

1. 서론

한 나라의 인구규모나 구조는 국가의 경쟁력 및 사회경제적인 발전과 삶의 질에서도 심각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출산력의 저하로 인한 생산인구의 감소는 경제성장을 둔화시키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1]. 최근 우리나라의 저출산 현상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낮은 출산수준과 빠른 노령화는 인구의 연령별 구조를 변화시켜 노동력의 부족, 노인부양 부담의 가중 등과 같은 사회문제를 초래하고 있다[2]. 지난 40여년간 우리나라는 산아제한에 초점을 맞춘 가족계획사업을 정책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출산기피 경향이 증가하면서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3].

통계청에 따르면 2013년도 월별 출생아수를 전년 동월과 비교 시 1월(-0.4%), 2월(-9.1%), 3월(-10.2%), 4월(-8.0%), 5월(-9.4%), 6월(-12.6%)등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고, 7월 출생아수는 3만6천400명으로 -9.2%로 3천700명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2년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1.297명으로 OECD 회원국의 평균 합계 출산율은 1.7명 보다 낮으며, OECD회원국 가운데 우리나라보다 합계 출산율이 낮은 나라는 헝가리(1.24명)뿐이었다[4].

출산을 기피하는 원인으로서는 여성의 사회진출이 증가되면서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관으로 양육까지 그 문제가 이어지고 있고, 양육을 위한 사회지원과 시설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되고 있지만, 현재 이러한 지원이 부족한 실정이어서 양육에 어려움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문제는 자녀의 양육비와 교육비 상승에 연관되면서 출산을 기피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5].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정책은 저출산에 대한 장기적 대응정책 보다는 단순한 출산장려 정책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 받고 있으며, 또한 지방자치단체별로 임기응변식의 정책을 시행함에 따라 부작용도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할 수 있다[6]. 출산문제는 더 이상 개인적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국가적 차원으로 다루어야 할 중요한 이슈이며 출산율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각도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7]. 우리사회의 출산율은 급격히 감소하여 최근 몇년째 지속되는 낮은 출산율이 사회문제를 일으키고 있으며, 이러한 인구의 지속적인 감소현상은 인구구조에도 변화를 가져온다. 출산율 감소와 인구 고령화는 경제와

산업의 침체, 보건·복지의 낙후, 실업을 증가, 교육·문화 등 사회시스템 전반의 변화를 요구하는 사회구조적인 문제로 범정부적 차원에서 종합적·체계적 대책이 필요하다[8]. 한 나라의 출산율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현재 출산율이 감소되는 이유와 출산율을 증가시키는 요소를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출산을 기피하는 것이 개인의 요인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사회전반의 문제에 따라 달라지는 것인지 분석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또 어떠한 경우 출산의도를 갖게 되고 출산행동을 결정짓게 하는지 분석해야만 한다[9]. 출산율 저하는 과거의 인구억제정책, 혼인율, 이혼율, 초혼연령의 변화,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 여성의 경제활동참여 및 자녀양육부담중대, 가정과 직장의 양립을 위한 사회적 기반부족, 여성교육수준 향상, 출산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 가족형태에 대한 인식 등 국가정책적, 인구학적, 사회경제적, 개인 및 가족적 차원 등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10]. 이 처럼 저출산으로 사회·경제적인 많은 문제들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됨으로 미래의 출산 주체자의 출산인식을 파악하고 그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이런 관점에서 본 연구는 미래의 출산주체가 될 대학생들의 희망자녀수, 출산정책, 출산저하 원인이 출산인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 그 결과를 토대로 향후 보다 실효성 있는 자녀출산의 정부정책이 수립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본 연구를 시도하였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파악한다.

둘째, 출산인식, 희망자녀수, 출산정책, 출산저하 원인의 태도 특성을 파악한다.

셋째,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출산인식을 파악한다.

넷째, 출산인식, 희망자녀수, 출산정책, 출산저하 원인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다섯째, 희망자녀수, 출산정책, 출산저하 원인이 출산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다.

2. 연구대상 및 분석 방법

2.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 대상은 G시에 소재한 보건계열 4개 대학에 재학 중이고 설문응답에 동의한 대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이용하여 자기기입식으로 작성하게 하고 회수하였다.

조사기간은 2013년 4월 8일부터 5월30일까지였으며, 설문지는 총 570명에게 배부하여 548부를 회수하여 96.1% 회수율을 보였으며, 이중 응답이 충실하지 않은 설문지를 제외한 500부가 최종 분석대상으로 전체 대상자의 87.7%에 해당하였다.

2.2 연구도구

설문지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사용하였으며, 기존의 선행연구 논문 조윤경[2]을 참고하여 수정, 보완하여 재구성하였다. 설문지의 구성은 일반적 특성에 관한 문항 12문항, 출산인식에 관한 문항 12문항, 희망자녀수 이유 문항 15문항(1자녀 또는 무자녀 8문항, 2자녀 이상 7문항), 출산정책에 관한 문항 4문항, 저출산원인 인식에 관한 문항 8문항, 총 39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각 문항에 대하여 ‘매우 그렇다’ 5점부터 ‘전혀 그렇지 않다’ 1점까지 5점 Likert 척도로 응답하도록 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임을 의미한다. 각 문항별 Cronbach’s alpha 값은 출산인식 .774, 희망자녀수 이유에서는 .986 - .940이었고, 출산제도 .786이었으며, 출산저하원인 인식은 .806이었다.

2.3 분석방법

일반적인 특성과 출산인식을 살펴보기 위해서 빈도분석과 기술통계를 실시하였고, 일반적인 특성과 출산인식 변수들의 상관관계 및 영향요인을 파악하기 위해서 상관관계 분석 및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자료분석은 SPSS WIN 1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를 구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출산영향요인의 차이에 대한 유의성 검증은 t-검정 또는 ANOVA로 분석하였다. 출산인식 태도(개인적요인, 경제적요인, 출산제도요인, 가족요인)와 희망자녀수(무자녀 또는 1자녀, 2자녀 이상), 출산정책, 출산저하원인 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s로 분석하였다. 출산인식에 미치는 요인은 다중회귀분석을 하였다. 측정도구의 내적 일관성의 신뢰도를 확인하기 위해 Cronbach’s alpha 값을 산출하였다.

2.4 연구의 제한점

G시에 소재한 보건계열 4개 대학의 일부 대학생을 대상으로 연구하였으므로 이 연구결과가 모든 대학생을 일반화시킬 수 없는 제한점이 있다.

3. 연구결과

3.1 일반적 특성

성별 분포는 남학생 20.4%, 여학생 79.6%로 여학생의 비율이 높은 양상을 보였고, 연령별로는 18-21세 80.0%, 22세 이상이 20.0%였다. 종교별로는 종교가 없는 학생이 57.0%, 기독교 28.2%, 불교 8.4%, 천주교 6.4%순 이었으며, 형제관계에서는 2명이 47.8%, 3명이상 45.2%, 1명인 경우 7.0%순 이었다. 성장지역으로는 대도시와 중도시가 각각 39.0%로 같았으며, 읍면지역이 21.8%였다. 가족형태는 확대가족이 76.2%, 핵가족이 23.8%, 경제적 생활수준은 중이 79.2%, 하 17.0%, 상 3.8%순 이었다. 부의 직업에서는 일반근로자 및 농업, 어업에 종사자가 34.6%, 준전문가, 사무종사자 24.4%, 기능 및 단순근로자 19.38%, 전문가 및 관리자 14.6%, 무직 9.6%순 이었으며, 모 직업에서는 주부가 49.4%, 일반근로자 및 농업, 어업이 34.8%, 준전문가 및 사무종사자 7.4%, 기능 및 단순근로자 5.6%, 전문가 및 관리자 2.8%순 나타났다. 부학력에서는 고졸 60.2%, 대졸이상 30.4%, 중졸이하 9.4%, 모학력은 고졸 74.2%, 대졸이상 15.6%, 중졸이하 10.2% 순으로 나타났다[Table 1].

3.2 출산인식, 희망자녀수, 출산정책, 출산저하 원인의 태도 특성

출산인식에 관한 태도(개인적요인, 경제적요인, 출산제도 요인, 가족요인), 희망자녀수 태도(무자녀 또는 1자녀와 2자녀 이상), 출산정책 태도, 출산 저하 원인 태도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Table 2].

출산인식의 개인적 요인에서는 개인 삶의 질이 출산에 영향을 미친다 3.35점, 사회참여 기회 박탈 3.34점, 자아실현을 위해 자녀를 갖지 않을 것이다 2.52점, 사회활동 참여를 위해 출산하지 않을 것이다 2.29점 순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요인에서는 자녀양육이 경제적 부담을 준다 3.90점, 교육비 부담 때문 3.79점, 직장생활 영위 때문 3.54점, 육아문제 때문 3.39점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출산제제도 요인에서는 교육·보육시설 부족 4.03점, 출산지원 부족 3.91점, 양육시설부족 3.75점 순이었고, 가족요인에서는 후손 번식 때문 3.22점으로 나타났다.

희망자녀수에 관한 태도에서는 1자녀 또는 무자녀를 원하는 이유에서는 경제적 이유 3.64점으로 가장 높았고, 직장과 자기생활 양립에 어렵기 때문 3.55점, 사회활동에

[Table 1] social demographic properties

(N=500)

Property	Parameter	Frequency (persons)	%
Sex	Male	102	20.4
	Female	398	79.6
	18-19 years	200	40.0
	20-21 years	200	40.0
	22-23 years	55	11.0
	24 years or older	45	9.0
Religion	Christian	141	28.2
	Catholic	32	6.4
	Buddhism	42	8.4
	None	285	57.0
Brother/Sister	1	35	7.0
	2	239	47.8
	3 or more	226	45.2
Growth place	Large city	195	39.0
	Middle to small city	196	39.2
	Eup/Myeon	109	21.8
Family type	Nuclear family	119	23.8
	Large family	381	76.2
Economic level	High	19	3.8
	Middle	396	79.2
	Low	85	17.0
Father's job	Professional or administrator	73	14.6
	Semi-professional or office worker	122	24.4
	General laborer or agriculture/fishery	158	31.6
	Technician or simple laborer	99	19.8
	No job	48	9.6
Mother's job	Professional or administrator	14	2.8
	Semi-professional or office worker	37	7.4
	General laborer or agriculture/fishery	174	34.8
	Technician or simple laborer	28	5.6
	Housewife	247	49.4
Father's educational level	Middle school graduate or lower	47	9.4
	High school graduate	301	60.2
	College graduate or higher	152	30.4
Mother's educational level	Middle school graduate or lower	51	10.2
	High school graduate	371	74.2
	College graduate or higher	78	15.6

지장 때문 3.48점, 육체적 정신적 부담 때문 3.36점 순이었고, 가장 낮은 이유로는 아이를 싫어해서 2.31점으로 나타났다.

2자녀 이상을 원하는 이유로는 외동 자녀가 외로울 것 같아 4.17점으로 가장 높았고, 자녀를 키우는 즐거움 때문 3.98점, 다자녀가 좋기 때문 3.93점, 가계승계를 위해 2.97점 순 이었으며, 가장 낮은 이유로는 노후 경제적 이유 때문 2.53점으로 나타났다.

출산정책에서는 출산 자녀수 변화에서 4.03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출산제도 인지에서 2.86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출산저하 원인에서는 양육비 및 교육비 증가가 4.24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경기불황 및 실업률 증가 3.99점, 아동보육시설 부족 3.91점, 개인 성취의식 확산 3.78점, 취업여성 증가 3.71점 등의 순서로 나타났고, 남아선호 사상 저하에서 3.14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3.3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출산인식 비교

인구사회학적 특성이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Table 3].

성별에서는 출산인식은 여학생의 경우 3.42점, 남학생의 경우 3.38점이었으며, 1자녀를 원하는 경우가 여학생 3.22점, 남학생의 경우 2.71점으로 여학생이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였으며($p<.05$), 2자녀 이상에서는 여학생이 3.26점, 남학생의 경우 3.29점으로 남학생이 다자녀를 갖는 것에 여학생들 보다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또한, 출산정책에서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p<.001$), 출산 저하원인에서도 남학생 보다 여학생이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로 나타났다($p<.05$). 일반적 특성에서는 2자녀 수에서 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고, 나머지 항목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

종교적 특성에서는 출산인식에서 천주교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불교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고, 통계적으로는 유의하지 않았다.

형제관계에서는 출산인식에서는 4명이상인 경우, 무자녀 또는 1자녀에서 형제수가 2명인 경우에 가장 높았고, 2자녀이상인 경우에서는 형제수가 1명인 경우, 출산정책에서 4명이상인 경우, 출산저하 원인에서는 2-3명인

[Table 2] Properties of causes of perception of childbirth, hoping number of children, childbirth policy, and childbirth reduction

Property		Parameter	Mean	Standard deviation
Perception of childbirth	Personal cause	Quality of personal life	3.35	.983
		No opportunity for social participation	3.34	.958
		Self-realization	2.52	1.031
		Participation in social activities	2.29	.985
	Economic cause	Economical burden	3.90	.891
		Childcare problem	3.39	.994
		Maintenance of work life	3.54	.936
		Budren of educational expenses	3.79	.907
	Cause of childbirth policy	Insufficient support of childbirth	3.91	.940
		Insufficient childcare facilities	3.75	.860
		Insufficient support of education and childcare	4.03	.881
	Cause of family	Breeding of descendants	3.22	1.047
Hoping number of children	No or one children	Dislike of children	2.31	1.205
		No necessity	2.49	1.119
		For couple's life	3.07	1.048
		Interference with social activities	3.48	1.107
		Economic reason	3.64	1.010
		Physical and mental burden	3.36	1.111
		Difficulty in concurrent office life and personal life	3.55	1.019
	Two or more children	Unfairness in couple's responsibility for childcare	3.10	1.083
		Loneliness of a sinle child	4.17	.910
		Preference of many children	3.93	.926
		Pleasure of childcare	3.98	.885
		Succession of family	2.97	.988
		Social responsibility	2.57	.939
		Possible loneliness after aging	2.74	1.136
Childbirth policy	Economic problem after aging	2.53	1.071	
	Perception of childbirth leave	2.86	1.038	
	Whether childbirth leave system is helpful in solving childbirth problems	3.90	.943	
	Why childbirth leave system is helpless in solving childbirth problems	3.74	.863	
	Change in number of children to be born	4.03	.881	
Cause of childbirth reduction	Economic slump and increased unemployment rate	3.99	.802	
	Increased employed female persons	3.71	.912	
	Increased first-marriage age and increased divorce	3.67	.817	
	Increased childcare and education expenses	4.24	.841	
	insufficient childcare facilities	3.91	.835	
	Comfortable life	3.63	.872	
	Increased perception of personal achievement	3.78	.832	
	Reduced preference of boys	3.14	.999	

경우에 가장 높게 나타났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장지역에서는 무자녀 또는 1자녀에서 중소도시에서 가장 높았고, 대도시, 읍면지역 순이었으며, 2자녀이상에서는 대도시, 읍면지역, 중소도시 순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p<.01). 또한 출산인식과 출산저하 원인에서는 대도시지역에서, 출산정책에서는 읍면지역에서 가장 높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형태는 출산인식에서 핵가족 형태에서 출산인식

과 2자녀이상, 출산정책과 출산저하 원인에서 높게 나타났고, 확대가족에서는 무자녀 또는 1자녀에서 높게 나타났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경제수준에서는 출산인식과 무자녀 또는 1자녀에서 경제수준이 낮은 수준에서 높았고, 2자녀 이상에서는 상수준에서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p<.05). 출산저하원인에서는 경제수준이 하, 중, 상순으로 나타났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p<.05).

부 직업과 희망자녀수에서는 무자녀 또는 1자녀에서 전문가 및 관리자, 서비스판매 및 일반근로자, 준전문가

[Table 3] Comparison of peerception of childbirth by social democratic property

Property	Parameter	Perception of childbirth (M±SD)	t or F	Hoping number of children				Childbirth policy (M±SD)	t or F	Cause of childbirth reduction (M±SD)	t or F
				No or one child (M±SD)	t or F	Two or more (M±SD)	t or F				
Sex	Male	3.38±.60	-.603*	2.71±.74	-2.341*	3.29±.58	.706	3.53±.79	15.601***	3.62±.71	-2.245*
	Female	3.42±.44		3.22±.67		3.26±.57		3.66±.55		3.79±.51	
Religion	Christian	3.49±.42	2.132	2.97±.73	1.415	3.26±.59	2.024	3.71±.58	2.32	3.76±.51	.602
	Catholic	3.50±.41		3.51±.85		3.31±.49		3.77±.55		3.88±.64	
	Buddhism	3.41±.54		3.43±.72		3.41±.49		3.52±.60		3.78±.48	
	None	3.36±.50		3.08±.66		3.26±.58		3.60±.63		3.74±.59	
Brother/Sister	1	3.44±.45	.611	3.00±.48	2.238	3.31±.50	.395	3.62±.64	1.407	3.73±.62	.534
	2	3.38±.45		3.32±.61		3.28±.56		3.58±.58		3.77±.54	
	3	3.42±.51		2.93±.83		3.27±.53		3.68±.62		3.77±.58	
	4 or more	3.48±.53		2.75±.66		3.18±.79		3.73±.67		3.67±.56	
Growth place	Large city	3.43±.50	.214	3.06±.68	1.101**	3.31±.51	1.789**	3.59±.64	.917	3.78±.59	.314
	Middle to small city	3.40±.47		3.25±.70		3.20±.64		3.65±.58		3.73±.59	
	Eup/Myeon	3.39±.45		2.85±.87		3.30±.54		3.68±.60		3.77±.44	
Family type	Nuclear family	3.44±.46	.663	3.02±.78	.551	3.31±.53	.670	3.70±.65	1.965	3.79±.58	.742
	Large family	3.40±.48		3.16±.68		3.25±.59		3.61±.60		3.75±.55	
Economic level	High	3.43±.62	1.164*	3.37±.57	1.453*	3.47±.47	1.102*	3.52±.70	.348	3.58±.57	1.448**
	Middle	3.39±.47		3.06±.70		3.25±.57		3.63±.59		3.75±.56	
	Low	3.48±.50		3.45±.76		3.29±.62		3.65±.68		3.82±.57	
Father's job	Professional or administrator	3.48±.52	.741	3.17±.42	.144*	3.33±.62	1.446**	3.74±.68	1.442	3.84±.66	1.872
	Semi-professional or office worker	3.41±.42		3.12±.62		3.27±.50		3.57±.54		3.71±.51	
	Service or sales worker	3.42±.46		3.22±.77		3.32±.55		3.68±.58		3.83±.49	
	Others	3.37±.47		3.02±.65		3.19±.57		3.57±.67		3.67±.64	
Mother's job	Professional or administrator	3.41±.42	.595	2.43±.08	.556**	3.34±.41	.208*	3.50±.60	.842	3.67±.56	.326
	Semi-professional or office worker	3.49±.48		3.25±.53		3.27±.50		3.75±.58		3.68±.51	
	Service or sales worker	3.43±.49		3.06±.71		3.26±.60		3.67±.59		3.78±.52	
	Housewife	3.41±.48		3.23±.71		3.28±.58		3.58±.65		3.76±.62	
	Others	3.33±.47		3.07±.50		3.26±.52		3.61±.56		3.77±.54	
Father's educational level	Middle school graduate or lower	3.34±.57	2.068	2.92±1.0	.366	3.32±.54	1.571	3.65±.71	.551	3.84±.53	.781
	High school graduate	3.39±.47		3.10±.68		3.23±.60		3.61±.60		3.76±.57	
	College graduate or higher	3.47±.47		3.19±.71		3.33±.54		3.67±.60		3.72±.54	
Mother's educational level	Middle school graduate or lower	3.35±.59	.535	2.66±.88	2.186	3.14±.71	1.337	3.70±.73	.902	3.76±.69	.456
	High school graduate	3.41±.48		3.11±.72		3.28±.56		3.61±.61		3.77±.55	
	College graduate or higher	3.44±.41		3.12±.70		3.32±.54		3.69±.54		3.70±.50	

*p<.05, **p<.01, ***p<.001

및 사무종사자, 기타 직업 순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p<.05). 또한 2자녀 이상에서는 전문가, 관리자 직업에서 가장 높았고, 서비스 판매 및 일반근로자, 준전문가 및 사무종사자, 기타직업 순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1). 출산인식에서는 전문가, 관리자 직업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출산정책에서는 전문가 및 관리자, 출산저하원인에서는 서비스 판매 및 일반근로자 직업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모 직업과 희망자녀수에서는 무자녀 또는 1자녀에서 준전문가, 사무종사자 직업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는 주부, 기타직업, 서비스판매 및 일반근로자 직업, 전문가 및 관리자직업 순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p<.01). 또한 2자녀 이상에서는 전문가 및 관리자 직업에서 가장 높았고, 서비스 판매 및 일반근로자 직업이 그 다음 이었고, 준전문가 및 사무종사자직업 순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5) 출산인식에서는 준전문가 및 사무종사자, 출산정책에서 준전문가 및 사무종사자, 저출산 원인에서는 서비스판매 및 일반근로자 직업에서 높게 나타났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부 학력에서는 출산인식과 희망자녀수, 출산정책에서

대졸이상, 출산저하원인에서는 중졸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모 학력에서는 출산인식과 희망자녀 수에서 대졸이상이 가장 높게 나왔고, 출산정책과 출산저하 원인서는 중졸이하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지만 통계적으로는 유의하지 않았다.

3.4 출산인식, 희망자녀수, 출산정책, 출산저하 원인 간의 상관관계

자녀수를 두지 않거나 1명을 두기 원하는 이유에서는 2자녀 이상을 갖기 원하는 이유와 음(-)상관계가 있었으며, 출산정책과 희망자녀수인 무자녀 또는 1자녀에서 음(-)상관관계 가있었고, 2자녀 이상에서 정적상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산저하 원인에서는 출산정책과 정적상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산인식을 개인적인요인, 경제적 요인, 출산제도적 요인, 가족요인으로 나누어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개인적 요인에서는 희망자녀수인 2자녀 이상에서는 음(-)의 상관관계가 있었고, 무자녀 또는 1자녀와 출산저하 원인에서 정적상관관계가 있었다. 경제적 요인에서는 출산정책, 출산저하원인, 개인적요인과 정적상관관계가 있었으며, 출산제도 요인에서는 희망자녀수인 무자녀 또는 1자녀에서 음(-)의 상관관계가 있었고, 출산제도 요인과 2자녀 이상, 출산정책, 출산저하 원인, 경제적요인이 정적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요인에서는 희망자녀수인 무자녀 또는 1자녀와 개인적요인과 음(-)의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2자녀이상과 출산정책, 출산제도 요인과 정적상관관계가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Table 4].

3.5 희망자녀수, 출산정책, 출산저하 원인이 출산인식에 미치는 영향

대학생의 출산인식에 상대적으로 많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요인을 살펴보기 위해 종속변수로 출산인식과 독립변수로 무자녀 또는 1자녀를 원하는 이유, 2자녀 이상을 원하는 이유, 출산정책, 출산저하원인을 희망자녀수의 응답자가 서로 상이하여 출산정책과 출산저하원인으로 구분하여 각각을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Table 5]. 출산인식에 희망자녀수인 무자녀 또는 1자녀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 약 15.1%(R²=.151), 2자녀 이상에서는 약 26.7%(R²=.267), 출산정책과 출산저하 원인에서는 48.2%(R²=.482)로 설명력을 지니며, 출산인식에 희망자녀수인 무자녀 또는 1자녀를 원하는 경우(P<.001), 2자녀 이상(P<.001), 출산정책(P<.001), 출산저하원인(P<.001)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녀를 많이 갖기를 원하는 경우 출산인식이 더 강함을 의미한다. 또한, 출산정책, 출산저하 원인이 강 할수록 출산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한다.

출산인식에 미치는 영향으로는 출산정책(β =.504)가 가장 큰 영향을 미쳤으며, 다음으로는 출산저하원인(β =.418), 무자녀 또는 1자녀를 원하는 경우(β =.389), 2자녀 이상(β =.203)순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분산확대지수(VIF)는 공차한계의 역수로 공차한계가 0.1보다 작거나 10보다 클 경우 공선성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1.00에서 1.299로 나타나 다중공선

[Table 4] Correlation among parameters

Parameter	Hoping number of children (A)			Childbirth policy	Cause of childbirth reduction	Perception of childbirth (B)			
	No or one child (a-1)	Two or more (a-2)				Personal cause (b-1)	Economic cause (b-2)	Cause of childbirth system (b-3)	Cause of family (b-4)
No or one child	1								
Two or more	-.876**	1							
Childbirth policy	-.160**	.199**	1						
Cause of childbirth reduction	-.014	.108	.432**	1					
Personal cause	.230**	-.137**	.080	.309**	1				
Economic cause	.073	-.008	.486**	.511**	.438**	1			
Cause of childbirth system	-.133**	.160**	.896**	.475**	.083	.588**	1		
Cause of family	-.232**	.314**	.146**	.022	-.131**	-.049	.093*	1	

*p<.05, **p<.01, ***p<.001

[Table 5] Causes of hoping number of children, childbirth policy, and childbirth reduction

Model	Non-standardization coefficient		Standardization coefficient	t	Collinearity statistics	
	B	Standard deviation	β		TOL	VIF
(Constant)	2.344	.265		8.859		
No or one child	.301	.082	.389	3.652**	1.000	1.000
			R ² = .151 F =13.339***			
	Durbin-Watson		2.187			
(Constant)	2.903	.128		22.676		
Two or more children	.164	.039	.203	4.250**	1.000	1.000
			R ² .267			
	Durbin-Watson		1.894			
(Constant)	1.010	.011		8.572		
Childbirth policy	.236	.033	.504	7.698**	.813	1.230
Cause of childbirth reduction	.417	.028	.418	14.784**	.813	1.230
			R ² .482 F 31.253***			
	Durbin-Watson			1.935		

*p<.05, **p<.01, ***p<.001

상의 문제는 없다고 하겠다. 또한, 공차한계 값과 전차의 독립성에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연구고찰

본 연구는 미래의 출산주체가 될 대학생들의 출산 인식이 출산행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요인을 살펴보고 그 결과를 토대로 향후 보다 실효성 있는 정부의 출산 정책과 출산제도가 수립될 수 있도록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본 연구를 시도하였다.

첫째, 대상자의 출산인식에 관한 태도를 개인적요인, 경제적요인, 출산제도 요인, 가족요인 등 4개영역과 희망 자녀수를 무자녀 또는 1자녀와 2자녀 이상으로 나누어 조사한 결과 개인적 요인에서는 개인 삶의 질이 출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출산이 사회생활의 참여 기회 박탈하기 때문, 자아실현을 위해, 사회활동 참여를 위해 출산을 기피하는 순으로 나타나 자녀 보다는 자신의 삶의 가치를 더욱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음을 나타내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경제적 요인에서는 자녀양육이 경제적으로 부담에 출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교육비 부담 때문, 직장생활 영위 때문, 육아문제 때문 순으로 나타났으며, 출산제제도 요인에서는 출산지원 부족, 교육·보육시설 부족, 양육시설부족 순이었고, 가족 요인에서는 후손 번식 때문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결

국 저출산 원인은 자녀 양육비용과 출산지원이 부족하기 때문이고, 그 해결책은 정부의 양육비 지원과 출산지원으로 이어진다. 이것은 아동수당과 보육비 지원이 정책적으로 우선시하여야함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김보경[8] 연구에서도 출산 또는 자녀수에 대한 생각에 변화를 줄 수 있는 수단으로 육아 및 보육비의 정부지원을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제시하고 있다.

희망자녀수에 관한 태도에서는 응답자의 15.4%가 1자녀 또는 무자녀를 원하는 것으로 그 이유로는 경제적 이유가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직장과 자기생활 양립에 어렵기 때문, 사회활동에 지장 때문, 육체적 정신적 부담 때문 순이었고, 가장 낮은 이유로는 아이를 싫어해서 순으로 나타났다. 김혜숙, 김보경, 이상덕, 오원옥, 신효영[7,8,15-17]의 연구에서는 무자녀 또는 한명의 자녀를 원하는 이유를 경제적 이유가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본 연구와 일치하였다. 현재 정부에서 출산장려책으로 수당을 지급하고 있지만, 오히려 인구출산율은 감소하고 있어 효과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지며[4],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현행 지원제도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전면적으로 바꾸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응답자의 84.6%가 2자녀 이상을 원하는 것으로 그 이유로는 외동 자녀가 외로울 것 같아서가 가장 높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자녀를 키우는 즐거움 때문, 다자녀가 좋기 때문, 가계승계를 위해서 순이었으며, 가장 낮은 이유로는 노후 경제적 이유 때문으로 나타

났다. 희망자녀수에서 무자녀 또는 한 자녀를 희망하는 경우와 2자녀이상을 희망하는 경우가 각각 15.4%와 84.6%로 김혜숙[7]의 연구와 동일하였다. 이 결과는 2자녀 이상을 원하지만, 사회제도적인 부분과 정부정책의 미흡으로 출산과 양육에 부담을 줌으로서 더 이상 자녀를 가질 수 없는 것으로 현실적인 문제점들에 대한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는 제도와 여건을 강구한다면 다산으로 유도 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출산정책에서는 출산 자녀수 변화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정부의 출산 정책이 출산율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의미하므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출산정책이 얼마나 중요한 지를 보여주고 있다.

출산저하원인에서는 양육비 및 교육비 증가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경기불황 및 실업률 증가, 아동보육시설 부족, 개인 성취의식 확산, 취업여성 증가 등의 순서로 나타나 적극적으로 양육비와 교육비를 지원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할 것이다.

둘째, 인구학적 특성인 성별에서는 출산인식, 무자녀 또는 1자녀를 원하는 경우, 출산정책과 출산저하 원인이 여학생이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 2자녀 이상에서는 남학생이 다자녀를 갖는 것에 여학생들 보다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남학생이 여학생 보다 다자녀를 원하고 있고, 여학생은 출산인식과 출산정책 및 출산저하 원인에서 진보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미라[14]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성별에 따른 자녀관에서 여학생이 높게 나타난 결과와 상이하게 나타났다. 이 결과는 남학생은 다자녀를 원하지만, 여학생의 경우는 출산 후 육아문제, 직장생활 지장의 이유 등으로 1자녀나 무자녀를 원하고, 출산인식이나 저출산 원인 등의 출산정책이나 사회적 제도인 출산지원 등에 더 관심이 높은 것으로 해석 할 수 있다. 출산저하원인이 출산에 미치는 영향은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더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학생이 출산의 주체자로서 출산저하 원인을 더 심각하게 인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성장지역과 희망자녀수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가족형태에서는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직업과 희망자녀수와 관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이 결과는 부모의 경제력이 대학생 자녀의 희망자녀 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출산에 있

어서 경제력이 상당부분 출산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박우현[18]의 연구에서 경제적 요인이 출산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본 연구와 일치하였다. 이는 부모의 경제력이 출산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어 출산장려를 위해 출산에 따른 소득감소에 대한 각종의 소득지원 정책으로 가족수당, 출산장려금지급, 가족소득 보충급여를 지급하고, 간접적 지원책으로 자녀의 양육과 교육지원을 위한 교육비와 의료비의 국가지원을 대폭 지원하는 정책을 마련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변수 간 상관분석의 결과로는 자녀수를 두지 않거나 1명을 두기 원하는 이유에서는 2자녀 이상을 갖기 원하는 이유와 출산정책과 희망자녀수인 무자녀 또는 1자녀에서 음(-)상관관계가 있었고, 2자녀 이상에서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출산정책에 대해 강하게 인식한 경우는 무자녀 또는 1자녀를 갖고자 하는 생각이 적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다자녀를 갖고자하는 인식이 강함을 의미하며, 출산저하 원인에서는 출산정책에서 정적상관 관계가 있는 것으로 이 의미는 양육비 및 교육비가 증가하거나 또는 경기불황 및 실업률이 높을수록 출산정책을 강하게 요구함을 의미한다.

출산인식을 개인적인요인, 경제적 요인, 출산제도적 요인, 가족요인으로 나누어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개인적 요인에서는 희망자녀수인 2자녀 이상에서는 음(-)의 상관관계로 이는 개인 삶의 질이나 사회참여기회 박탈이 증가 할수록 2자녀이상을 갖는 것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개인적인 요인과 무자녀 또는 1자녀와 출산저하 원인에서 정적상관 관계로 나타나 이는 개인적인 요인이 강 할수록 무자녀 또는 한 자녀를 갖고자 함을 의미하고 출산저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 할 수 있다. 경제적 요인인 경제적 부담이나 교육비 부담이 출산정책, 출산저하원인, 개인적 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이미란[19]의 연구에서 사회·경제적요인 가운데 자녀에 따른 비용에 부담을 크게 느끼는 여성 일수록 출산의지에 대해 낮은 성향을 보이는 것으로 본 연구와 일치하였다.

출산제도 요인인 교육, 보육시설 부족과 출산지원 등이 부족 할 경우 무자녀 또는 1자녀를 갖고자 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2자녀 이상과 출산정책, 출산저하 원인, 경제적 요인과 정적상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요인에서는 희망자녀수인 무자녀 또는 1자녀와

개인적요인과 음(-)의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이는 대학생들이 자손을 두는 것 보다는 개인의 삶의 질이나 사회 활동 참여 등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가족요인인 후손번식을 강하게 갖고자 할 때는 2자녀 이상을 갖고자하는 이유가 강함을 의미하고 출산정책인 출산 자녀수 변화를 가져 올 수 있음을 의미한다.

넷째, 대학생의 출산인식에 상대적으로 많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요인을 살펴보기 위해 종속변수로 출산인식과 독립변수로는 무자녀 또는 1자녀를 원하는 이유, 2자녀 이상을 원하는 이유, 출산정책, 출산저하 원인을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무자녀 또는 1자녀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 약 15.1%($R^2=.151$), 2자녀이상에서는 약 26.7%($R^2=.267$), 출산정책과 출산저하 원인에서는 48.2%($R^2=.482$)로 설명력을 지니며, 출산인식에 희망자녀수인 무자녀 또는 1자녀를 원하는 경우, 2자녀 이상 출산정책, 출산저하 원인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녀를 많이 갖기를 원하는 경우 출산인식이 더 강함을 의미한다. 또한, 출산정책, 출산저하 원인이 강 할수록 출산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한다.

출산인식에 미치는 영향으로는 출산정책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으며, 다음으로는 출산저하 원인, 무자녀 또는 1자녀를 원하는 경우, 2자녀이상 원인 순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어 대학생들의 출산인식에 대한 긍정적 가치관을 형성하기 위해서 사회, 문화적, 제도적으로 노력들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가치관의 변화는 장기적으로 사회환경의 개선을 통해 이루어지며, 단기적 효과는 쉽지 않지만 출산인식 전환의 정책을 실천할 수 있는 전략을 구체화하여 대학생들의 인식변화와 출산에 대한 가치를 긍정적으로 변화 유도 할 수 있는 학교교육과 가정에서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된다. 이런 교육이 출산인식과 가치에 영향을 주어 출산 선택으로까지 이어 질 수 있는 사회적 제도적 여건을 형성해 가는 것이 필요하다.

5. 결론

본 연구는 일 지역 보건계열 대학생을 대상으로 희망 자녀수, 출산정책, 출산저하 원이 출산인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출산인식에 관한 태도로 개인적 요인에서는 개인 삶의 질이, 경제적 요인에서는 자녀양육이, 출산제도 요인에서는 출산지원 부족, 가족요인에서는 후손 번식 때문에서 출산에 가장 높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희망자녀수에 관한 태도에서는 경제적 이유, 출산저하원인에서는 양육비 및 교육비 증가에서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출산인식 비교에서는 성별과 출산인식, 무자녀 또는 1자녀를 희망하는 경우와 출산정책, 출산저하 원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성장지역에서는 희망자녀수와 경제수준에서는 출산인식, 희망자녀수와 출산저하 원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또한, 부모의 직업이 희망자녀수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그 외에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출산인식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셋째, 출산인식, 희망자녀수, 출산정책, 출산저하 원인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자녀수를 두지 않거나 1명을 두기 원하는 이유에서는 2자녀 이상을 갖기 원하는 이유, 출산정책에서는 희망자녀수인 무자녀 또는 1자녀에서, 개인적 요인에서는 2자녀 이상, 출산제도 요인에서는 무자녀 또는 1자녀, 가족요인에서는 무자녀 또는 1자녀 및 개인적 요인에서 음(-)상관계가 있었다. 출산정책에서는 2자녀 이상, 출산저하 원인에서는 출산정책과 정적 상관 관계가 있었고, 출산인식인 개인적 요인에서는 무자녀 또는 1자녀 및 출산저하원인, 경제적 요인에서는 출산정책, 출산저하 원인, 개인적 요인과 정적상관 관계가 있었다. 또한, 출산제도 요인에서는 2자녀 이상, 출산정책, 출산저하 원인, 경제적 요인에서 정적관계가 있었으며, 가족요인에서는 무자녀 또는 1자녀와 개인적요인과 음(-)의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2자녀이상과 출산정책, 출산제도 요인과 정적상관관계가 있었다.

넷째, 희망자녀수, 출산정책, 출산저하 원인이 출산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 본 결과 출산인식에 희망자녀수인 무자녀 또는 1자녀를 원하는 경우, 2자녀 이상, 출산정책, 출산저하원인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산인식에 미치는 영향력 순으로는 출산정책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으며, 다음으로는 출산저하원인, 무자녀 또는 1자녀를 원하는 경우, 2자녀 이상 순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상과 같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대학생들의 출산

인식을 전환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출산 주체자인 대학생들의 미래 출산인식을 전환하기 위한 정부차원에서 출산정책 입법제정과 출산지원정책, 출산인식의 가치관 형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운영, 현재 출산지원정책의 효과를 분석하여 새로운 지원책이 마련된다면 출산을 향상으로 이어 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그에 따른 효과를 검증 할 수 있는 후속 연구가 필요 할 것으로 사료된다.

Reference

- [1] Shin, HY, "Individual values on giving birth and social view on childbirth encouragement policy", The Graduate School of Hanseo University, 2009.
- [2] Cho, YJ, "Research on Female College Students' Views on Marriage and Childbirth", Sungshin Women's University, 2007.
- [3] Hwang, JY, "A study on the marriage and a delivery recognition of collegians", The Graduate School of Seoul Christian University, 2006.
- [4] 2012 birth statistics, Statistics Korea (Demography survey), 2012.
- [5] Kim, HJ, "Factors that Affect Perception of Marriage and Childbirth across Unmarried Men and Women", Graduate School of Public Adiministration Kyung Hee University, 2010.
- [6] Kim, JY, "A Study on the Causes of Lowering Birth-Rate and Their Counter-Measures", Graduate School of Public Adiministration Kyung Hee University, 2004.
- [7] Kim, HS, Park, JS & Jo, EJ, "The Perceptions of Marriage and Childbirth of Health Care Fields College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Service Management, 5(2), pp. 131-146, 2011.
- [8] Kim, BK, "Factors Impacting on marriage and Child Birth of University students in Daegu", Graduate School of Environment & Public Health Yeungnam University, 2005.
- [9] Shin, HY & Bang, ER, "Individual Values on Childbirth and Social View on Childbirth Encouragment Policy",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47(10), pp. 123-136, 2009.
- [10] Park, EJ & Chun, HM, "The Effect of Vocational Consciousness on Female College Students' Perception of Marriage and Childbirth" Journal of the Korea Association of Family Relations, 16(2), pp. 87-105, 2011.
- [11] Do, MH, "The Effect of College Students' Awareness on Marriage and Childbirth to Future Marriage and Childbirth", Korean Journal of Family Welfare, 16(4), pp. 163-178, 2011.
- [12] Sin, KS, "A Study On Birth Will Of College Students", Graduate School Yeungnam University, 2012.
- [13] Kwon, HJ, Kim, YJ, Kwon, SJ, Park, SA, Anh, YM, Oh, GS & Lee, KS, "College Students' Perception on Childbirth as a Challenge",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18(1), pp. 175-200, 2011.
- [14] Cung, MR, Chang, YH, "A study on the conception of the values of marriage, having child & job of university students and it's variables", Sungshin Women's University Institute for Education 41. pp. 91-108. 2006.
- [15] Lee, SD, Hong, KO, "A Survey on collegians' attitude on marriage and fertility in Gyeongju", Gyeongju research, 19(2), pp. 135-161, 2010.
- [16] Oh, WO, "Marriage Outlook, Health of the Family of Origin and Sexual Awareness among University Students",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15(2), pp. 232-240, 2009.
- [17] Hyo Young Shin, Eun Ryoung Bang, "Youth perceptions on Childbirth & Marriage", Jural of Future Oriented Youth Society, 5(3), pp. 95-113, 2008.
- [18] Park, Woo Hyun, "The Study on the Influencing Factors of Birth Will", Graduate School of Policy , Chosun University, 2011.
- [19] Lee, Mi Ran, "An Empirical Study on the Influencing Factors of Delivery Behavior", Dept. of Public Administration Graduate School, Kookmin University, 2007.

정 상 진(Sang-Jin Jung)

[정회원]



- 1996년 8월 : 한양대학교 행정대학원 (병원행정학석사)
- 2014년 3월 : 조선대학교 대학원 보건학과 (박사과정)
- 2010년 9월 ~ 현재 : 광주보건대학교 보건행정과 교수

<관심분야>

병원행정, 보건행정, 건강보험, 경영분석